



황새가 유유히 춤추는 고향

마쓰이 다카요 (도요오카시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주간)

1. 도요오카시의 위치와 지형

도요오카시는 효고현 북부에 위치하는 인구 8만 8천 명의 도시이다. 북쪽으로 동해에 면해 있고, 남쪽으로는 주고쿠산지 [中国山地] 동쪽 끝에 걸쳐있으며, 도시 중앙에는 마루야마강 [円山川] 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시 전역은 79.3%가 삼림이고, 해안에는 산인 [山陰] 해안국립공원, 산악에는 효노센우시로야마나기산 [氷ノ山後山那岐山] 국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계가 빗어 내는 다양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입고 있다.

(1) 만물의 근원인 강, 마루야마강 [円山川]

도요오카시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 마루야마강은 하구에서 10km 정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 가더라도 하구와의 낙차가 1m 밖에 나지 않는다. 마루야마강의 중하류 지역의 하구 구배는 1만분의 1 정도로 거의 수평상태이기 때문에 바람 없는 날에는 강 표면이 거울과 같이 고요하다. 마루야마강 상류부터 힘차게 흘러 내려온 물은 도요오카분지로 들어서면서 유속이 갑자기 떨어진다. 더구나 하구에서 6.5km 떨어진 겐부 [玄武] 동굴 근처에는 산이 강의 양쪽 하안까지 뻗어 내려와 병목 같은 지형을 형성하여 많은 양의 강물이 동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다가 넘쳐 종종 수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저습지에 생육하는 키버들이 마루야마강에 번성하여, 키버들을 이용한 공예품이 도요오카의 주요 생산품이 되어 현재의 가방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마루야마강과의 싸움

2004년 태풍 23호 때 마루야마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인 이즈시강 [出岩江], 이난바강 [稲葉川], 오타강 [太田江] 등도 범람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7년 이상 걸린 피해복구사업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마루야마강의 범람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은 매우 이전부터 있었는데 다이쇼시대 (1912-1926) 후기부터 쇼와시대 (1926-1989) 초기에 걸쳐 마루야마강 개수를 시행하였고, 그전인 에도시대 후기에는 이즈시 [出岩] 번 [藩] 이 실시한 이즈시강 합류부의 오보에 [大保恵] 제방 축조 등이 있다. 이렇게 마루야마강 유역 주민은 강과의 싸움의 역사를 갖고 있다.

2. 일본장수도롱뇽과 황새의 복원

(1) 이즈시강 하천개량복구공사와 일본장수도롱뇽

태풍 23호 피해가 컸던 이즈시강에서 몇 곳의 보가 손상 되어 상류로 올라갈 수 없게 된 특별천연기념물인 일본장수도롱뇽 (*Andrias japonicus*) 이 다수 발견되었다. 복원공사를 담당하였던 효고현 도요오카토목사무소에서는 공사 착공 전에 일본장수도롱뇽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다가 공사 완료 후에 원래의 장소로 되돌리기로 하였다. 당시 사업을 담당하였던 시의 재해복구사무실에서는 구역의 초등학교와 연구자들과 함께 「이즈시강 유니버 리버즈」를 계획하고, 일본장수도롱뇽 보호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체험학습의 일환으로서 생물관찰과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포한 일본장수도롱뇽에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였고, 방류 후 환경서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수는 500마리를 넘는데 데이터는 현재 도요오카시교육위원회에서 보관·관리하여 서식조사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이즈시강 하천개량 복구공사는 일본장수도롱뇽도 살 수 있는 환경대책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 「황새가 유유히 춤추는 고향」조성계획

도요오카시는 지역이 목표로 하는 장래상을 「황새가 유유히 춤추는 고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안전과 안심의 구축 ②지역경제 활성화 ③사람과 문화의 육성을 위해 황새를 핵심으로 한 선진적인 시도를 도요오카 모델로서 널리 알리는 것을 기본구상의 테마로 삼았다.

1) 황새의 야생 복원

황새는 일본에서 한 번 절멸한 적이 있다. 1965년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던 황새를 구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야생의 황새를 포획하여 인공사육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40년 후인 2005년 최초로 방사에 성공하였으나, 그 동안 포획한 야생 개체가 죽어 인공사육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인공 부화하지 못한 세월이 20년이나 계속되었다. 1985년 하바로브스크에서 기증된 6마리가 부화에 성공하여 성체로 성장하게 되었고, 제 2세대, 제 3세대를 거쳐 사육 두수가 100마리로 증가한 시점에서 황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사를 하게 되었다. 현재는 야생에서 둥지를 튼 황새를 포함하여 약 48마리의 황새가 하늘을 누비고 있다.

2) 황새와의 공생

황새가 야생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요오카시에서는 황새가 살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가꾸고, 다양한 수변을 재생시켜 네트워크화하였으며, 농업을 하면서 생물을 육성시키는 「자연환경」의 보존·재생·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을 돌이켜 보고, 배우고 즐기며, 즐기면서 자원 절약형의 생활을 재현하고 있다. 도요오카시의 황새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와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도요오카 산물의 브랜드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환경'의 보존·재생·창조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을 두 개의 축으로 삼아 환경과 경제가 공명하는 '작은 세계도시'를 목표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실로 사람과 황새의 공생이라고 할 수 있다.

3. 겐부 동굴과 산인 해안 지오파크

(1) 겐부 [玄武] 동굴의 정비

도요오카시 일대는 에도시대부터 현무암을 채석하여, 마루야마강을 이용한 수운으로 가옥의 초석, 정원석, 돌담장 등을 운반하여 왔다. 이것은 매우 유명하여 어떤 집이라도 도요오카산 현무암 1개 정도는 있을 정도라고 했다. 또한 헤이안시대 (794~1192) 부터 문인들이 후타미노우라 [二見浦] 라고 부르며 시를 지어 예찬할 정도로 훌륭한 풍광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메이지시대 말기 현무암 채석을 중지하고,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보여주는 관광지로서의 정비계획이 세워졌다. 때마침 건너편 강가에 철도가 부설되어 겐부동굴역이 생기고, 이웃 역인 기노사키 [城崎] 온천의 관광객이 몰려와 일대가 큰 관광지가 되었다. 그 후 호쿠탄 [北但] 대지진과 침식변화에 의해 조금씩 절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겐부동굴과 세류동굴 [靑龍洞] 을 2003년부터 6년간 문화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비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문화재로 지정 받지 않은 밭코동굴 [白虎洞], 남쪽 북쪽의 슈자큐동굴 [朱雀洞] 도 국토교통성의 보조를 받아 정비되었다.

(2) 산인 [山陰] 해안 지오파크의 활용

겐부동굴 정비공사 진행 중에 산인해안국립공원을 핵심으로 하는 도토리현, 효고현, 교토부 등 1부 2현이 세계지오파크 가맹 인증을 받자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산인해안국립공원은 사구·동굴입구·동굴·기암 등의 암석 해안 외에도 발자국 화석·포트홀 (pot hole)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여 '지형·지질의 박물관'이라 불리고 있다. 또한 효고현내에서는 국가지정천연

기념물인 '겐부동굴', '요로이노소테 [鎧の袖] 절벽', 명승인 '가즈미 [香住] 해안', 명승 및 천연기념물인 '다지마미호노우라 [但馬御火浦] 해안'을 비롯한 다수의 현(縣) 지정 및 시정 (市町) 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2010년 세계지오파크 가맹인정된 산인 해안 지오파크는도요오카시의 경우 산인해안국립공원에 위치한 겐부동굴, 히요리야마 해안, 다케노 해안 외에 내륙의 간나베 고원, 마루야마강 하류역의 기노사키 온천, 하치로노토시마습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관광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오파크의 보호와 홍보, 지오투어리즘을 전개하고 있다.

4. 천연기념물과의 공존, 활용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의 개념은 동물, 식물, 지질·광물을 말하며, 각각의 종이나 개체를 대상으로 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도요오카시에서는 현재, 국가지정 2건, 현지정 12건, 시지정 21건 등 총 35건의 천연기념물이 있으며, 자연형의 명승 3건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 보전, 홍보, 공개 등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한편으로 황새와의 공생이나 지오파크는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네트워크, 투어리즘, 이들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역사문화 기본구상', 2008년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지역의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요오카시에서는 황새와 지오파크 관련 검토가 선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행정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각하고, 대처하며,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 『도요오카 시사 (市史) 상권』, 1991.3, 도요오카시
- 『도요오카 시사 (市史) 하권』, 1991.3, 도요오카시
- 『도요오카시 종합계획 (전기 기본계획)』, 2007.3, 도요오카시
- 『도요오카시 종합계획 (후기 기본계획)』, 현재 진행 중
- 『요람』, 2004.3, 도요오카시립황새문화관
- 『2011년도 요람』, 효고현립 황새의 고향 공원
- 『황새여 다시 창공으로』, 2006.1, 고베신문종합출판센터
- 와시타니 이즈미 편, 『황새의 선물』, 2007.1, 지인서관
- 오노 하스히로, 구보시마 에미, 『황새여 다시』, 2008.8, 익스날리지
- 『천연기념물 겐부동굴 보존정비사업 보고서』, 2010.3, 도요오카시